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 담 심 리 전 공

김 소 영

2017년 8 월

중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박 정 환

김 소 영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6월

김소영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년 8월

<국문초록>

중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김 소 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정 환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중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정서지능, 외현적 공격성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중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 소재 2개 중학교 1-3학년 학생 372명을 대상으로 2017년 3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첫째, 아버지의 자녀가 중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자녀 양육태도 지각검사’ 척도(총 40문항, 5점 Likert)를 사용하였다. 둘째, 정서지능의 측정을 위해 임은혜(2002)의 검사도구(총 32문항, 3점 Likert)를 사용하였다. 셋째, 외현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영경(2008)이 번안한 Marsee, Kimonis와 Frick(2004)의 자기 보고형 또래 갈등 척도(총 20문항, 3점 Likert)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8.0에 의해 빈도분석, 상관분석,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3단계 매개효과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후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정서지능, 외현적 공격성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정서지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4가지 하위요인들 모두 정서지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은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정서지능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정서지능이 중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따라 정서지능에 영향을 주고 정서지능은 외현적 공격성을 낮추는 작용을 함으로써 정서지능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정서지능이 중학생 자녀의 외현적 공격성을 낮추어 주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함으로써 정서지능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적 개입의 근거 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연구가설	4
4. 용어의 정의	6
II. 이론적 배경	9
1. 아버지의 양육태도	9
1) 양육태도의 의미	9
2)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의미	10
2. 정서지능	11
3. 외현적 공격성	14
4. 아버지의 양육태도, 정서지능, 외현적 공격성 간의 관계	15
III. 연구방법	20
1. 연구대상	20
2. 연구 설계 및 절차	22
3. 연구도구	22
1) 측정도구: 아버지의 양육태도 척도	22
2) 측정도구: 정서지능 척도	24
3) 측정도구: 외현적 공격성 척도	25

4. 자료 분석	25
IV. 연구결과 및 해석	27
1. 기술통계량	27
1) 아버지의 양육태도	27
2) 정서지능	28
3) 외현적 공격성	29
2. 아버지의 양육태도, 정서지능, 외현적공격성간의 상관관계	30
3.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32
4.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별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34
V. 논의 및 결론	43
1. 논의 및 결론	43
2. 제언	45
참고문헌	46
Abstract	51
부록	54

표 목 차

표 III-1. 연구 대상자.....	21
표 III-2. 아버지 양육태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23
표 III-3.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24
표 III-4. 외현적 공격성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5
표 IV-5. 아버지 양육태도의 하위요인별 점수분포.....	27
표 IV-6. 정서지능의 하위 요인별 점수분포.....	28
표 IV-7. 외현적 공격성의 점수분포.....	29
표 IV-8. 아버지의 양육태도, 정서지능, 외현적 공격성간의 상관분석.....	30
표 IV-9.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32
표 IV-10. 애정지향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34
표 IV-11. 자율지향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36
표 IV-12. 성취지향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38
표 IV-13. 합리지향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40

그림 목 차

그림 II-1.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연구모형	5
그림 IV-2.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33
그림 IV-3. 애정지향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35
그림 IV-4. 자율지향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37
그림 IV-5. 성취지향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39
그림 IV-6. 합리지향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4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안식처의 개념을 포함한다.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 성장해 가는 최초의 사회집단이다. 자녀에게 부모는 최초의 의사소통 대상자이며 돌봄과 올바른 훈육으로 아동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양육에 대한 미숙함과 무관심으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가정이 많이 있으며 특히 아버지의 낮은 양육 참여도와 일관성 없는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을 저하 한다는 여러 선행 연구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 아버지의 역할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되어왔으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친숙함 보다는 근엄함과 가정의 규율을 유지하고 통솔하는 이미지가 많았다. 경제적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로 가정에서 자녀의 양육 보다는 직장에서의 일에 신경을 써야 했고 가사와 자녀양육은 어머니에게 맡겨짐으로써 어머니와 자녀의 유대감이 강화되는 현상이 생겼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994년 30.7%에 불과했던 맞벌이 가정의 비율은 2014년 43.9%로 13.2% 늘었다. 이는 5가구 중 2가구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과거에 비해 높아진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진출의 증가를 보여준다. 2015년 인구조사 통계에 의한 지역별 맞벌이 가정비율을 살펴보면 서울 37.4%, 경기 41.7%에 비해 제주의 경우 61.3%의 높은 맞벌이 가정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제주지역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태도가 더욱 중요함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동반자적인 관계로 변화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변화도 가져왔다. 이는 자녀 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가사나 자녀양육에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는 가치관의 변화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물려 최근 아버지의 역할이나 양육참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또한 아버지의 역할이나 태도가 자녀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아버지의 역할에 더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박성지, 2003).

아버지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양육에 관련되는 변인으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를 들 수 있다. 이중 양육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나타내는 보편적이면서 구체적인 행동의 질적 정도를 의미하는데, 최경순(1992)은 자율, 애정, 성취, 관심의 차원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개념화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이들 변인이 청소년의 다양한 발달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최경순, 1992), 스트레스(조주은, 2004), 정서조절능력 및 공격성(김기순, 2002)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외에도 학업성취, 창의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희, 1997; 신부자, 1995).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 중 공격성은 사회문제의 주된 전조증상으로도 설명되며(황혜선, 2007), 사회의 어려움을 예측하는 행동적 요인으로도 활용되고 있다(Coie & Dodge, 1998). 청소년기의 공격성은 청소년 자신의 사회적, 정서적인 문제(하진의, 2004)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정선, 2002). 이러한 공격성은 생의 이른 시기에 학습되어 청소년기가 되면 공고해지므로 아동기에 개입하여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미영, 1998).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환경적 요인 외에 부정적 정서성, 탄력성 등 개인적 요인이 있다(김선희, 2000).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개인마다 받아들이고 느끼는 정

도가 다르고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른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기인한다(윤영신, 2007).고 볼 수 있다. 개인 내부적인 특성은 공격성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 낸다. 공격성과 개인 내부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오고 있다. 개인 내부적 특성중 하나로 정서지능이 있다. 정서지능은 정서(Emotion)와 지능(Intelligence)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개념으로(Mayer & Salovey, 1990) 정서지능은 성격과 같은 일반적인 성향이나 행동 선호도 또는 사회적 기술을 의미할 뿐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기분을 파악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정신을 포함하기 때문에 Mayer와 Salovey(1990)는 정서지능을 지능(intelligence)으로 보았다. 진정한 의미에서 지능은 그 속에 이른바 창의력이나 조직력, 참여도, 동기, 심리학적 기량이나 인간성과 같은 정서적 사회적 능력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신과 타인의 기분을 파악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정서지능도 하나의 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 또한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과 관계되는 개념으로 원만한 인관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나 직장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Mayer & Salovey, 1990, 1996).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정서를 통제하고 맥락에 따라 조절하는 인지적 능력이 있는 아동에게는 만족 지연 행동으로 표현되어 정서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경향이 있었다(Block & Block, 1980; 박혜경, 2002). Gottman과 Katz는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혼란스러울 때 스스로를 진정시킬 줄 아는 아동은 공격적인 행동 유발 상황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일이 드물고 이러한 아동은 공격성 같은 문제행동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숙형, 2004).

위의 선행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정서지능에 영향을 주고, 정서지능은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정서지능이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정서지능과 외현적 공격성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를 알아보고, 정서지능이 이들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정서지능, 외현적 공격성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중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3.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1)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를 통해 탐색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중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정서지능, 외현적 공격성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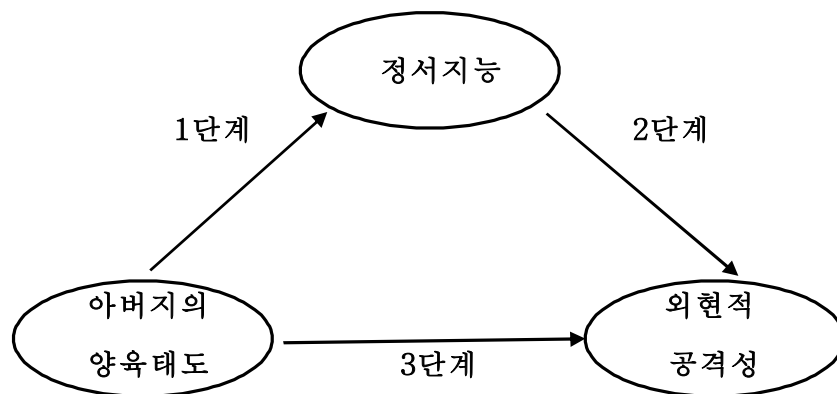
가설 2. 중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

서지능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모형

‘가설 2’를 통해 중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를 탐색한 후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즉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외현적 공격성에 영향을 끼치는 경로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가 외현적 공격성에 부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모형을 제안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연구모형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학생

본 연구에서 중학생은 2017년 3월 조사시점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1, 2, 3학년 학생을 지칭한다. 중학생은 발달단계상 청소년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는 자아성장의 결정적 시기로 급격한 신체적 변화, 정서적인 변화, 사회적 관계 등의 변화를 경험하는 과도기임과 동시에 부모의 보호와 의존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특성을 포함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성장의 출발선에 있는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을 모두 포함시켜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기의 특성과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따른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연구에 반영하고자 한다.

2) 아버지의 양육태도

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양식을 말한다(Becker, 1964).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청소년인 자신을 양육하는 태도가 얼마나 애정적, 자율적, 성취 지향적, 합리적인지를 평정하여 그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3) 외현적 공격성

공격성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하는 데 일반적으로 “해를 가하는 의도를 지니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할 수 있다(Berkowitz, 1993; 위효진, 2016 재인용). 이 같은 정의는 구체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직접 가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해를 가할 목적이 있는 의도도 공격성으로 간주한다(Marsee et al., 2011; 위효진, 2016 재인용). 대부분의 연구자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이는 공격적 행동을 형태에 따라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한다(Cardet al. 2008; 위효진 2016 재인용).

외현적 공격성은 밀기, 때리기와 같은 신체적 방법 및 언어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이며 관계적 공격성은 의도적으로 언어나 행동을 조작하여 또래 그룹에서 소속감과 우정에 해를 가하는 행동을 말한다(Crick & Grotpeter, 1995; 이승연 2011 재인용). 즉 외현적 공격성은 외부로 드러나는 형태의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Little, Brauner, Jones, Nock, & Hawley, 2003; 이승연, 2011 재인용).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현적 공격성은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부 청소년은 높은 수준의 외현적 공격성을 유지하거나 더욱 심각한 수준의 외현적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odge et al., 2008; 위효진, 2016 재인용).

이처럼 중학생에게 표출되는 외현적 공격성은 공격성의 형태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관계적 공격성보다 비행과 위협 행동에 밀접한 것이며 외현적 공격성의 건설적 전략은 차분한 대화, 지지, 유머, 문제 해결, 신체적·언어적 애정 등을 표현하는 것이다(Cummings & Schatz, 2012; 위효진, 재인용).

4) 정서지능

정서지능이란 정서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학업능력을 측정하는 IQ에서 벗어나고자 출현한 새 이론으로, Mayer & Salovey가 처음으로 ‘정서지능’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Mayer & Salovey(1990)는 정서지능을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점검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사고를 이끄는 능력’이라 하였으며, 이것은 Thorndike(1920)가 인간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으로 ‘사회지능’을 정의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이예은, 2015 재인용). 즉,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능력을 정서지능의 개념으로 포함하였다.

Goleman(1995)은 정서지능을 ‘나와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상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라 정의하고 대중화시켰는데, 이후 Mayer & Salovey(1997)가 1990년에 정의한 정서지능이 정서의 주체적 사고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정서지능의 개념을 수정 및 보완하여 정의하였다. 여기에는 정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평가 및 표현하는 능력, 개인이 스스로의 사고를 촉진하는 감정을 만들고 접근하는 능력, 정서와 관련된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정서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 조절 능력을 포함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정서지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문용린(1997)은 정서지능에 대해 기억력, 계산력, 추리력 등의 이성적 사고 능력을 발휘 또는 억압, 제한하는 감성적 능력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자기인식, 자기 동기화, 감정이입, 대인관계기술, 자기조절능력 등의 5가지 전략을 들고 있다. 이처럼 학자들마다 정의하는 정서지능의 개념과 관점이 조금씩 다르나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정서지능의 개념은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표현하며 정서를 활용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라 볼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버지의 양육태도

1) 양육태도의 의미

Becker(1964)는 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정의 분위기, 사회·경제적 수준, 문화적 배경, 그리고 부모나 자녀의 특성에 따라 복합적으로 구성된 양육자로서의 일반적인 행동양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남재희, 2004).

Schaefer(195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자율적 태도, 애정적-통제적 태도, 거부적-자율적 태도, 거부적-통제적 태도로 나누었고 양육태도에 따른 자녀의 성격유형을 설명하였다. 이종승과 오성심(1982)은 Hebb와 Bernstein의 이론에 기초하여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네 개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애정-적대 양육태도에서 애정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수용적이고 헌신적이며 애정을 갖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상담이나 칭찬, 격려 등을 아끼지 않는 반면, 적대적 양육태도는 비난과 체벌을 가하고 무관심하거나 소홀한 부모의 태도를 말한다. 자율-통제 양육태도에서 자율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의 개성 및 의견과 권리를 존중하여 지나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자녀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지는 습관을 권장한다. 이에 반해 통제적 양육태도는 엄격하고 제한이 많으며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고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한다. 성취-비성취 양육태도에서 성취적 양육태도는 높은 포부 수준을 설정하여 달성하기를 격려하고 부지런히 활동하기를 권장하며 끈기 있게 집중하여 일을 해내도록 기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반해 비성취적 양육태도

는 자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태도이다. 마지막으로 합리-비합리 양육태도에서 합리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매사에 이유를 중시하고 자녀에게 일의 동기와 근거 제시를 요구하며 교육에 있어 이성적인 반면, 비합리적 양육태도는 이유를 들으려 하지 않고 결과를 중요시하며, 일관성이 없는 감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종승과 오성심(1982)이 Hebb와 Bernstein의 이론에 기초하여 네 개의 차원으로 분류된 양육태도 개념을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의미

오늘날에는 어머니 못지않게 육아에 있어서 아버지의 영향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아버지는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Parke, 1995). 아버지는 자녀와 보내는 시간의 대부분을 사회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Redina & Dickerscheid, 1976).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비록 적을지라도 아동양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머니와 비슷하고, 아버지가 아동의 요구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고성희, 임성택, 2009; Lamb, 1981)는 선행연구도 있다. 김옥엽(1981)은 아버지가 역할을 잘 수행할 경우, 자녀의 정의적 특성 중 대인관계가 가장 크게 발달하고 그 외 지구력, 지적 호기심, 성취동기, 자아개념 순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Poulter(2006)는 자신의 임상 경험에서 아버지의 특성이 자녀와의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으로 자녀의 불안, 수치심, 성취동기 등의 심리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유아가 더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보였고(박정원, 2003; 한은정, 2006),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자기효능감 및 성취동기 발달에도 유의한 상관과 영향력이 있고, 자녀의 인성발달과 사회생활에도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김경미, 2003; 김영훈, 2009)가 있다. 아버지가 아동에게 온정과 지지, 긍정적 반응, 독립성을 격려하는 등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수록 아동이 아버지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하여 존경스러운 아버지 상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유미, 2001; 조선희, 2011). 반면 부정적인 아버지 특성은 자녀의 성취동기와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전윤주, 2014). 이와 관련하여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한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와 대인문제해결능력과 같은 심리사회적 발달, 행동 발달, 공감, 자기통제감, 자아존중감 등 여러모로 영향을 미친다. 아동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자율적·통제적 이라고 인식할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연화, 강문희, 2008; 신명덕, 2007). 그리고 아버지가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한 자녀는 또래사이에 지도력과 인기가 높으며 자기주장과 자신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혜, 이경화, 2006). 양경수(2011)와 채영문(2010)은 아버지가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취할 경우 학령전기 아동의 친사회성이 높아지고 정서조절능력이 발달한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버지의 자율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유아의 자아 존중감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도록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거부적 양육태도를 통해 자란 유아는 부모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며 분노가 발생하고 내면화된 갈등과 고통을 지니게 되며 적응력이 떨어지는 등 정서지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광균, 2000; 안라리, 박화윤, 신인영, 2013)고 하였다.

이처럼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 정서지능

정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서, 인간이 생존하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며, 인간행동을 안내하거나 동기를 유발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Campos, Mumme, Kermoian & Campos, 1994; 손희동, 2008, 재인용). 하지만 지능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지능지수가 인간의 행복과 성공을 충분하게 예언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성공적인 삶을 예언해 줄 변인으로 정서가 지적 기능을 한다고 보는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Gardner, 1983; Goleman, 1995; Mayer & Salovey, 1996).

일반적으로 정서지능은 정서(Emotion)와 지능(Intelligence)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개념이다(Mayer & Salovey, 1990). 정서지능은 성격과 같은 일반적인 성향이나 행동 선호도 또는 사회적 기술을 의미할 뿐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기분을 파악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정신을 포함하기 때문에 Mayer와 Salovey(1990)는 정서지능을 지능(intelligence)으로 보았다. 진정한 의미에서 지능은 그 속에 이른바 창의력이나 조직력, 참여도, 동기, 심리학적 기량이나 인간성 같은 특성인 정서적·사회적 능력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신과 타인의 기분을 파악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정서지능도 하나의 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Mayer와 Salovey(1990, 1997)가 새로운 지능의 개념으로 정서와 지능을 결합한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을 제안하였고, 그 후 Goleman(1995)이 정서지능이라는 저서를 출간하면서 EI 또는 EQ라는 개념으로 대중화되었다.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 또한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과 관계되는 개념으로 원만한 인관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나 직장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Mayer & Salovey, 1990, 1996). 정서지능은 정서적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과정으로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정서를 사고나 행동에 대한 정보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세 가지 과정을 포함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정의는 정서지능의 개념과 구성내용의 모호성 그리고 정서의 인식과 조절 능력은 포함되어 있으나, 정서에 대한 사고능력을 언급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정된 정의를 제시하였다(Mayer & Salovey, 1997). 이에 Salovey & Sluyter(1997)는 정서지능이 정서를 정확히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 감정에 접근하고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 정서 및 정서와 관련된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정서적·지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등의 네 가지 능력을 포함하는 지능이라고 재정의 하였다(정복희, 2003).

우리나라의 정서지능 연구에서 문용린(1997)은 정서지능을 이성능력을 발휘하게 하거나 억압하고 제한하기도 하는 감성능력, 좌절의 상황에서 희망을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절제하고 통제하며 타인의 감정에 대해 예민하게 느끼고 인내심을 지속시켜 근심으로 인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방해받지 않도록 정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인내심과 지구력, 정열과 용기, 신념과 절제력,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통제하고 활성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한다(유경미, 2002).

문용린(1997)은 Mayer와 Salovey(1990; 1996)의 초기모형과 최근모형 및 Goleman(1995)의 견해를 종합하여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의 5개 요인을 정서지능의 구성요소로 제안하였다. 문용린의 정서지능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첫째, 정서인식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정서표현은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상황에 적절하게 맞도록 표현하고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셋째, 감정이입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내부에서 재 경험해 봄으로써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넷째, 정서조절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섯째, 정서활용은 자신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제 수행이나 문제 해결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김현준, 2007).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정서지능은 문제해결 및 정보처리의 과정에서 자신의 정서와 지식의 활용과 더불어 타인의 정서와 인식을 통합적으로 아

울리 활용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3. 외현적 공격성

공격성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하는 데 일반적으로 “해를 가하는 의도를 지니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할 수 있다(Berkowitz, 1993). 이 같은 정의는 구체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직접 가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해를 가할 목적이 있는 의도도 공격성으로 간주한다(Marsee, 2011). 대부분의 연구자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이는 공격적 행동을 형태에 따라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한다(Cardel, 2008). 외현적 공격성은 밀기, 때리기와 같은 신체적 방법 및 언어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이며 관계적 공격성은 의도적으로 언어나 행동을 조작하여 또래 그룹에서 소속감과 우정에 해를 가하는 행동을 말한다(Crick & Grotpeter, 1995). 즉 외현적 공격성은 외부로 드러나는 형태의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Little, Brauner, Jones, Nock, & Hawley, 2003).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현적 공격성은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Brame., 2001), 일부 아동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 지속해서 높은 수준의 외현적 공격성을 유지하거나(Karriker-Jaffe, Foshee, Ennett, & Suchindran, 2013)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심각한 수준의 외현적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odge, 2008). 이처럼 청소년기에 표출되는 외현적 공격성은 공격성의 형태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관계적 공격성보다 비행과 위협 행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Predy & Fite, 2012). 결과적으로 외현적 공격성은 성인기 이후 반사회적 행동(Di Giunta, 2010)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외현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외현적 공격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성별 차이에 관련된 연

구가 다수 이루어졌다(이승연, 2011; Preddy & Fite, 2012; Underwood, Beron, Rosen, 2009; Xie, Drabick, & Chen, 2011). 그러나 몇몇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학생의 외현적 공격성은 남학생과 비교해 지연되어 발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여학생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외현적 공격성이 점차 증가한다는 결과도 보고하였다(서미정, 2011; Kistner, Counts-Allan, Dunkel, Drew, David-Ferdon, & Lopez,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여전히 외현적 공격성은 남학생이 전형적으로 표출하는 공격성의 유형으로 밝히고 있다(Martino, Ellickson, Klein, McCaffrey, & Edelen, 2008). 최근 몇몇 연구(Marsee & Frick, 2007; Preddy & Fite, 2012)에 따르면 공격성은 형태와 기능의 차원이 다양하므로 특정한 유형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실제적인 중재 개발에 필요하며 이에 따라 외현적 공격성을 구별하여 특정한 형태의 공격성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공격성에 초점을 둘 것이며 외현적 공격성을 밀기, 때리기와 같은 신체적 방법 및 언어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4. 변인들간의 관계

1)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어머니가 제공하는 자극과는 다른 독특한 자극을 제공하므로, 즉 어머니는 따뜻함이나 지적, 또는 언어적인 자극에 관심을 가지는 반면에 아버지는 놀이나 독립심에 관심을 가지므로(Belsky, 1980) 부모의 이러한 관심은 어느 한쪽에서만 받는 일방적인 자극에 비해 자녀의 지적, 사회적 발달에 보다 효과가 있다(Makee & O'Brien, 1982; Lummis, 1982). 자녀 양육에서의 아

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서의 아버지의 직접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실제로 아버지의 역할에 관심이 높아지고 참여도가 높아져가는 추세이다.

자녀의 정서지능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의적 특성, 특히 자아개념, 안정성, 사회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그들의 정의적 특성 간에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양육태도의 애정 및 성취차원과 자아개념, 안정성, 사회성 등의 정의적 특성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는 애정.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감정이입과 높은 상관이 있었으며, 적대.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정서지능의 정서활용 영역과 부적상관을 나타내므로 정서지능과의 관련이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아동의 대부분은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했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아버지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했다(이미희, 2002).

김진일(2004)은 성인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민주적으로 지각할수록 성인기 자녀의 정서지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독재적인 양육태도는 정서지능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위의 여러 선행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하위요인별로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2) 정서지능과 외현적 공격성

정서지능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Rothbart와 Bates는 자

기조절 능력이 낮은 아동일수록 외현화된 행동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김미정, 2006), Eisenberg, Guthrie, Fabes, Shepard, Losoya, Murphy, Jones, Poulin, & Reiser(2000)의 연구에서는 정서조절 능력이 낮은 아동은 내재화된 행동문제와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보인다고 하여 정서조절 능력의 부족은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 동시에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보임으로써 공격성 같은 문제행동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Cole, Michel, & Teti의 연구에서도 긍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김숙형, 2004). Fabes와 Eisenberg도 정서의 강도가 높고, 주의력, 통제력이 낮은 아동이 분노와 좌절을 공격적인 행동이나 감정 발산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김미정, 2006).

반면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정서를 통제하고 맥락에 따라 조절하는 인지적 능력이 있는 아동은 만족 지연 행동으로 표현되어 정서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경향이 있었다(Block & Block, 1980; 박혜경, 2002). Gottman과 Katz 는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혼란스러울 때 스스로를 진정시킬 줄 아는 아동은 공격적인 행동 유발 상황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일이 드물고 이러한 아동은 공격성 같은 문제행동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숙형, 2004).

Goodman, Brogan, Lynch, & Fielding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조절 능력이 낮은 아동은 사려성이 결핍되어 대인관계에서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나아가서는 폭력과 일탈을 일삼는 반사회적 행동도 높게 나타내었다(임희수, 2001).

따라서 위의 여러 선행연구들은 정서지능이 외현적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이 중학생의 외현적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3)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

수십 년간 가족연구에서는 주 양육자로 어머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옆에서 보조자 역할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80년대 이후부터 아버지 에 대한 연구가 부각되기 시작하였고(조선화, 최명선, 2002), 아버지와 관련된 연구에서 아버지 역할의 특성, 자녀 발달단계에 따른 아버지 역할 변화에 대한 연구와 양육태도 및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의 관심사인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 정서적 발달, 학교생활 적응이나 학업성적과 같은 인지적 발달, 자아 존중감 형성 등 아동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발달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Whiteside-Masell, Bradley, & McKelvey, 2008). 또한 아버지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로 자녀를 대할수록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절하고 서로 협력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한 반면(양경수, 2011), 거부적, 허용적, 방임적 양육태도로 자녀를 대할수록 친사회적 행동은 더 낮게 나타났다(장영애, 이영자, 2009). 이외에도, 아버지의 강압적 공격성 조장 양육태도는 남아의 공격성(박성연, 2002; Shaw, Winslow, Owens, Vondra, Cohn, & Bell, 1998)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Capaldi et al., 2003),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받은 여아는 또래에게 신체적, 관계적 공격성을, 아버지의 신체적 처벌을 많이 받은 남아는 신체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였다(Nelson, Hart, & Jin, 2006). 마찬가지로 처벌과 통제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태도 역시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과 공격성,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영림, 2006).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에게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학대를 받은 아동은 공격성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rick, 1995).

위의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격적 행동의 모델이 되어 자녀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선행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친밀하고 합리적이며 허용적일수록(이영화, 김경연, 2012).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공격성은 낮아졌다(정재영, 2013). 또한 부모의 친밀하고 허용적인 ‘독립성 조장과 수용’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공격성은 낮추었으며, 행동적 제지와 통제를 행하는 ‘과잉보호·거부’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공격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의 일차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공격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또다시 자녀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인 관계를 보인다(김순옥, 안성원, 2013).

한편,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이 없고 거부적이면 형제나 친구간의 관계에서 공격적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Bigner,1977; 김철희, 2014, 재인용). 또한 처벌과 통제와 같은 부정적인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과 공격성,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허영림, 2006).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성별에 따른 영향으로 아버지의 강압적이고 공격성을 조장하는 양육태도는 남아의 공격성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여아에게도 신체적,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서지영, 2003).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은 떨어지고, 아버지가 강압적이고 통제, 거부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면 아동의 공격성,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발달로 영향을 미친다(조하영, 2012)고 볼 수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정서지능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정서지능은 청소년의 외현적공격성을 낮춘다고 유추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도 소재 2개 중학교 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의 절차는 2017년 3월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작성하도록 한 후 회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설문 실시 방법은 중학교에 방문하여 각 학급 담임교사에 연구의 목적과 설문 실시의 유의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포 및 회수는 각 학교에 방문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답한 설문지 48부를 제외한 372부만을 설문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을 중학교 1, 2, 3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청소년기는 자아성장의 결정적 시기이며 사춘기 급격한 신체적 변화, 정서적인 변화, 사회적 관계 등의 변화를 경험하는 과도기임과 동시에 아동기를 벗어났지만 고등학생에 비해 아직은 부모의 보호와 영향력이 크게 남아있는 시기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는 분노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적 행동 반응은 감소하나 더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공격적 행동이 나타나며, 공격성은 더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게 되므로 이후의 공격성을 예측하는데 효과적이다(이은아, 천성문, 2013). 또한 자기보고식의 많은 설문 문항에 신뢰 있게 성실히 응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각이 가능하며, 자신의 경험과 사고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이은혜, 2000).

최종 분석에서 사용된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구성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연구 대상자

(N=372)

		빈도	퍼센트(%)
성별	남	192	51.6
	여	180	48.3
학년	1학년	62	16.6
	2학년	249	67
	3학년	59	16
가족형태	핵가족	314	84.4
	대가족	43	11.5
	기 타	15	4
아버지의연령	~44세	82	22
	45~49세	207	55.6
	50세 이상	77	20.6
아버지 교육수준	고등학교졸업	81	21.7
	대학졸업	255	68.5
	대학원 졸업 이상	36	9.6
아버지 직업	농업	17	4.6
	어업	7	1.9
	생산직	7	1.9
	서비스직	82	22
	사무직	73	19.6
	판매직	26	6.9
	행정, 관리직	33	8.8
	전문, 기술직	87	23.3
	기타	39	10.4
하루평균 아버지와의 함께하는 시간	30분 미만	109	29.3
	30분~1시간 미만	100	26.8
	1시간 ~2시간 미만	94	25.2
	2시간~3시간 미만	39	10.4
	3시간 이상	30	8.0

2. 연구 설계 및 절차

연구자는 2017년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1, 2 3학년 학생 37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부모의 양육태도, 정서지능, 외현적 공격성 척도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각 척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버지의 양육태도 척도

본 연구에서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오성심, 이종승(1982)이 제작한 검사지(4개 영역 15문항씩 총 60문항)를 임선화(1987)가 중복되는 문항을 간추려 4개의 하위 영역에서 각 10문항씩 40문항으로 수정하여 재구성한 ‘부모-자녀 양육태도 지각검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중, 아버지의 양육태도만을 연구하기 위해 기존의 검사지에서 ‘부모’라는 용어 대신 ‘아버지’로 수정하여 설문하였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애정지향, 자율지향, 성취지향, 합리지향 등 4개 차원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차원을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긍정, 부정적인 면으로 양극화시켜 4차원 8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4개의 영역에 각각 10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22개의 긍정 문항과 18개의 부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긍정적(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

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적대적, 통제적, 비성취적, 비합리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Cronbach α) 전체 .89로 하위영역별로는 애정-적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버지 양육태도 척도의 하위 영역별 신뢰도계수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계수
애정-적대	1, 4(*), 13, 17(*), 21, 25, 29, 33(*), 34, 37(*)	10	.808
자율-통제	2(*), 6, 10, 14, 18(*), 22, 26(*), 30(*), 38, 40(*)	10	.493
성취-비성취	3, 7(*), 11, 15, 19, 23, 27(*), 31(*), 35, 39	10	.722
합리-비합리	5(*), 8, 9, 12(*), 16(*), 20(*), 24(*), 28, 32, 36(*)	10	.747
전체		40	.89

(*)은 역점수 문항임

2) 정서지능척도

본 연구에서는 Mayer와 Salovey(1997)의 정서지능 연구에 기초하여 개발된 임은혜(2002)의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임은혜(2002)의 검사도구는 Mayer와 Salovey(1997)의 정서지능 모형에 기초해 ‘정서의 인식과 표현’, ‘정서에 의한 사고 촉진’, ‘정서적 지식의 활용’, ‘정서의 반영적 조절’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역마다 4개의 하위 수준들로 세분화되어 있다. 각 영역별로 8문항씩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 방법은 각 하위 요소별로 문항마다 제시된 3개의 잡지 중에서 하나에 응답하며, 해당되는 1번이 1점, 2번이 2점, 3번이 3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한다. 9, 10, 24번은 반대의 점수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4개의 각 영역별 총점은 24점으로 총 96점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Cronbach α) 전체 .833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서지능 척도의 하위 영역별 신뢰도계수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계수
정서의 인식과 표현	1, 2, 3, 4, 5, 6, 7, 8	8	.723
정서에 의한 사고 촉진	9(*), 10(*), 11, 12, 13, 14, 15, 16	8	.543
정서적 지식의 활용	17, 18, 19, 20, 21 22, 31, 32	8	.649
정서의 반영적 조절	23, 24(*), 25, 26, 27, 28, 29, 30	8	.738
전체		32	.833

(*)은 역점수 문항임

3) 외현적 공격성척도

중학생의 외현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영경(2008)이 번안한 Marsee, Kimonis와 Frick(2004)의 자기 보고형 또래 갈등 척도(Peer Conflict Scale)를 사용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반응적, 주도적 공격성 차원에서 관계적, 외현적 공격성 차원을 모두 측정하도록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2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3점)’로 구성되며 외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는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에게 물건을 던진다’, ‘놀림당하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무언가를 부술 것이다’ 등을 포함한다. 총점 범위는 20점에서 80점으로,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언어적이나 신체적 방법을 통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해를 끼치는 외현적 공격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외현적 공격성의 신뢰도계수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외현적 공격성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문항수	신뢰도 계수
외현적 공격성	20	.911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처리를 위하여 SPSS 18.0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정서지능, 외현적 공격성 간의 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3단계 매개회기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먼저, 2단계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2단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단계는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이 2단계보다 3단계에서 줄어들 때 매개효과가 있다고 해석한다. 종속변인에 대해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를 보인다고 하며, 유의미한 경우에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인다고 해석한다(Baron & Kenny, 1996; 윤경미, 2012, 재인용).

셋째,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공식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량

1) 아버지의 양육태도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인식한 아버지 양육태도와 그 하위요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5> 아버지 양육태도의 하위 요인별 점수 분포
(N=372)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애정지향	3.87	1.10	1	5
자율지향	3.24	1.06	1	5
성취지향	3.77	1.03	1	5
합리지향	3.72	1.11	1	5
아버지의 양육태도	3.71	.474	1	5

<표 IV-5>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태도 전체 평균은 3.71로 나타났으며, 하위변인으로는 애정적 태도가 3.87로 가장 높았고 성취적 태도가 3.77, 합리적 태도 3.72, 자율적 태도 3.24의 순서로 나타났다.

2) 정서지능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정서지능과 그 하위요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6> 정서지능의 하위 요인별 점수 분포

(N=372)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정서의 인식과 표현	2.37	0.60	1	3
정서에 의한 사고촉진	2.28	0.65	1	3
정서적 지식의 활용	2.25	0.61	1	3
정서의 반영적 조절	2.36	0.63	1	3
정서지능	2.32	0.25	1	3

<표 IV-6>에서와 같이 정서지능의 전체 평균은 2.32로 나타났으며, 하위변인으로는 정서의 인식과 표현이 2.37로 가장 높았고 정서의 반영적 조절 2.36, 정서에 의한 사고촉진 2.28, 정서적 지식의 활용 2.25의 순서로 나타났다.

3) 외현적 공격성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7> 외현적 공격성의 점수 분포

(N=372)

연구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외현적 공격성	0.16	0.25	0	3

<표 IV-7>에서와 같이 외현적 공격성의 전체 평균은 0.16으로 나타났다.

2. 아버지의 양육태도, 정서지능, 외현적 공격성간의 상관관계

중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정서지능, 외현적 공격성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상관분석 결과는 <표 IV-8>와 같다.

<표 IV-8> 아버지의 양육태도, 정서지능, 외현적 공격성간의 상관분석
(N=372)

	1	1-1	1-2	1-3	1-4	2	2-1	2-2	2-3	2-4	3
1 아버지의양육태도	1										
1-1 애경지향	.888**	1									
1-2 자율지향	.721**	.451**	1								
1-3 성취지향	.853**	.757**	.490**	1							
1-4 합리지향	.869**	.695**	.582**	.590**	1						
2 정서지능	.434**	.412**	.259**	.412**	.351**	1					
2-1 정서의인식과표현	.357**	.334**	.233**	.349**	.270**	.759**	1				
2-2 정서에의한사고촉진	.400**	.379**	.201**	.400**	.336**	.816**	.587**	1			
2-3 정서적지식의활용	.149**	.173**	.099	.152**	.073	.630**	.250**	.364**	1		
2-4 정서의반영적조절	.370**	.332**	.228**	.318**	.344**	.782**	.404**	.502**	.367**	1	
3 외현적공격성	-.229**	-.139**	-.238**	-.141**	-.259**	-.202**	-.132*	-.196**	.088	-.317**	1

* $p < .05$, ** $p < .01$, *** $p < .001$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전체와 정서지능 전체($r=.434^{**}$, $p<.01$)는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정서지능은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전체와 외현적 공격성($r=-.229^{**}$, $p<.01$)은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공격성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서지능과 외현적 공격성($r=-.202^{**}$, $p<.01$)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외현적 공격성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애정지향 양육태도, 성취지향 양육태도는 정서지능 전체($r=.412^{**}$,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합리지향 양육태도는 정서지능 전체($r=.351^{**}$,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율지향 양육태도 역시 정서지능 전체($r=.259^{**}$,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애정을 바탕으로 한 관심과 수용의 태도, 자녀의 능력에 대한 격려, 일관성 있는 태도와 자녀의 개성과 의견을 존중하는 양육태도로 지각될수록 정서지능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합리지향 양육태도는 외현적 공격성 전체($r=-.259^{**}$, $p<.01$)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율지향 양육태도는 외현적 공격성 전체($r=-.238^{**}$, $p<.01$)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취지향 양육태도는 외현적 공격성 전체($r=-.141^{**}$, $p<.01$)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애정지향 양육태도 역시 외현적 공격성 전체($r=-.139^{**}$, $p<.01$)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태도와, 자녀에게 지나친 감독과 통제를 가하지 않고, 자녀의 능력에 대해 격려하고 존중하는 양육태도로 지각될수록 외현적 공격성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3.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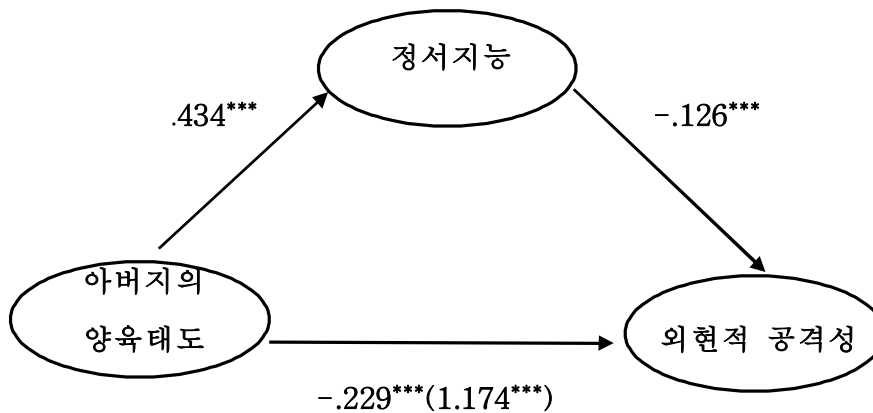
1)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중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9>와 같고 <그림 IV-2>와 같이 도식화 하였다.

<표 IV-9>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N=372)

단계	모형	R ²	F	B	SE	β	t
1	아버지의 양육태도 → 정서지능	.188	85.681	.231	.025	.434	9.256***
2	아버지의 양육태도 → 외현적 공격성	.052	20.428	-.125	.028	-.229	-4.520***
3	아버지의 양육태도, 정서지능	.065	12.890	-.095	.031	-.174	-3.114***
	→ 외현적 공격성			-.130	.057	-.126	-2.264***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 회귀계수B(a)=.231		표준오차SE(a)=.025			
Z=-2.21		비표준화 회귀계수B(b)=-.130		표준오차SE(b)=.057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V-2>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표 IV-9>에 의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를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1단계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beta=.434$, $t=9.256$, $p<.001$)는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명력은 18.8%이며 회귀 모형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85.681$, $p<.001$). 2단계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beta=-.229$, $t=-4.520$, $p<.001$)는 외현적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5.2%이고 회귀 모형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20.428$, $p<.001$). 3단계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을 예측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양육태도($\beta=-.174$, $t=-3.114$, $p<.001$)와 정서지능($\beta=-.126$, $t=-2.264$, $p<.001$)이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은 6.5%로 2단계의 5.2%보다 증가하였다. 3단계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을 독립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여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값($\beta=-.174$)이 2단계의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값($\beta=-.229$)보다 줄어들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정서지능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서지능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Z=-2.21$ ($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정서지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높아진 정서지능은 외현적 공격성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별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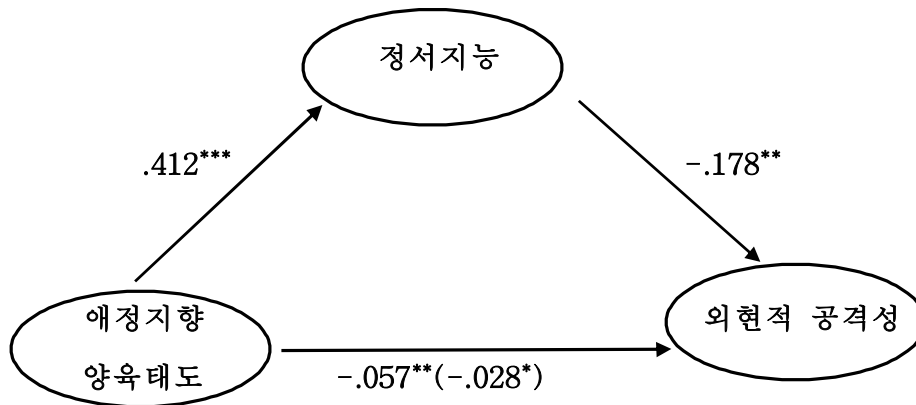
1) 애정지향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아버지의 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애정지향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0>과 같고 <그림 IV-3>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표 IV-10> 애정지향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단계	모형	R ²	F	B	SE	β	t
1	애정지향 양육태도 → 정서지능	.169	75.501	.164	.019	.412	8.689***
2	애정지향 양육태도 → 외현적 공격성	.019	7.336	-.057	.021	-.057	-2.708**
3	애정지향 양육태도 정서지능	.045	8.605	-.028	.023	-.028	-1.215*
	→ 외현적 공격성			-.178	.057	-.178	-3.115**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 회귀계수B(a)=.164		표준오차SE(a)=.019			
Z=-2.94		비표준화 회귀계수B(b)=-.178		표준오차SE(b)=.057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V-3> 애정지향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표 IV-10>에 의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를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단계에서 애정지향 양육태도($\beta=.412$, $t=8.689$, $p<.001$)는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명력은 41.2%이며 회귀모형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75.501$, $p<.001$). 2단계에서 애정지향 양육태도($\beta=-.057$, $t=-2.708$, $p<.001$)는 외현적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1.9%이고, 회귀모형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7.336$, $p<.001$). 3단계에서 애정지향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을 예측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애정지향 양육태도($\beta=-.028$, $t=-1.215$, $p<.001$)와 정서지능($\beta=-.178$, $t=-3.115$, $p<.001$)이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은 4.5%로 2단계의 1.9%보다 증가하였다. 또한 3단계에서 애정지향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을 독립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여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값($\beta=-.028$)이 2단계의 애정지향 양육태도가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값($\beta=-.057$)보다 줄어들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정서지능은 애정지향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서지능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Z=-2.94$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위의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을 바탕으로 자녀와 친밀한 관계형성을 이룰수록 정서지능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높아진 정서지능은 외현적 공격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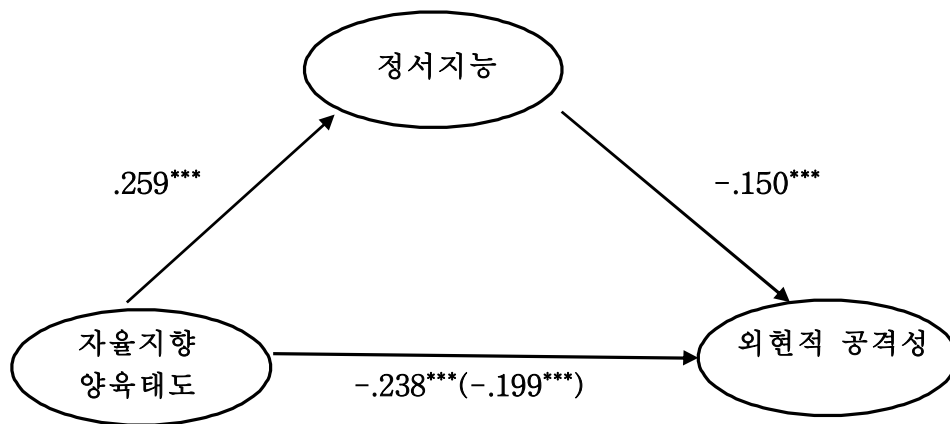
2) 자율지향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아버지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자율지향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1>과 같고 <그림 IV-4>와 같이 도식화 하였다.

<표 IV-11> 자율지향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단계	모형	R ²	F	B	SE	β	t
1	자율지향 양육태도 → 정서지능	.067	26.663	.145	.028	.259	5.164***
2	자율지향 양육태도 → 외현적 공격성	.057	22.278	-.137	.029	-.238	-4.720***
3	자율지향 양육태도 정서지능 → 외현적 공격성	.078	15.570	-.115 -.154	.030 .053	-.199 -.150	-3.852*** -2.901***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 회귀계수B(a)=.145 표준오차SE(a)=.028					
Z=-2.53		비표준화 회귀계수B(b)=-.154 표준오차SE(b)=.053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V-4> 자율지향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표 IV-11>에 의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를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단계에서 자율지향 양육태도($\beta=.259$, $t=5.164$, $p<.001$)는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명력은 6.7%이며 회귀모형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26.663$, $p<.001$). 2단계에서 자율지향 양육태도($\beta=-.238$, $t=-4.720$, $p<.001$)는 외현적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5.7%이고, 회귀모형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22.278$, $p<.001$). 3단계에서 자율지향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을 예측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자율지향 양육태도($\beta=-.199$, $t=-3.852$, $p<.001$)와 정서지능($\beta=-.150$, $t=-3.115$, $p<.001$)이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은 4.5%로 2단계의 1.9%보다 증가하였다. 또한 3단계에서 자율지향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을 독립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여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값($\beta=-.199$)이 2단계의 자율지향 양육태도가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값($\beta=-.238$)보다 줄어들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정서지능은 자율지향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서지능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Z=-2.53$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개성 및 의견과 권리를 존중하는 자율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고 높아진 자아존중감은 정서지능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쳐 외현적 공격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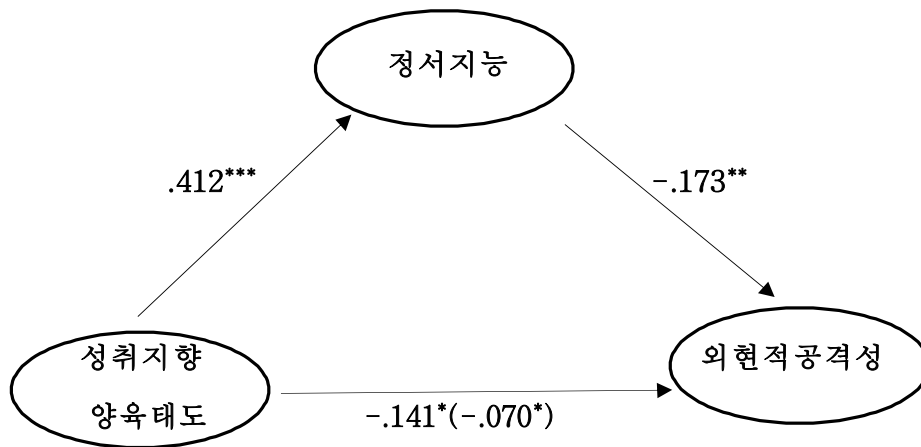
3) 성취지향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아버지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성취지향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12>과 같고 <그림 IV-5>와 같이 도식화 하였다.

<표 IV-12> 성취지향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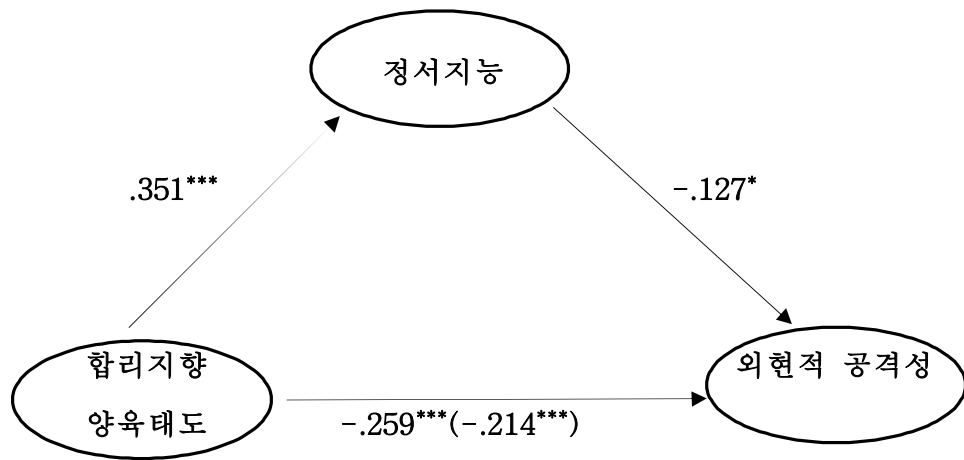
단계	모형	R ²	F	B	SE	β	t
1	성취지향 양육태도 → 정서지능	.170	75.674	.189	.022	.412	8.699***
2	성취지향 양육태도 → 외현적 공격성	.020	7.514	-.066	.024	-.141	-2.741*
3	성취지향 양육태도 정서지능 → 외현적 공격성	.045	8.650	-.033	.026	-.070	-1.249*
				-.178	.057	-.173	-3.100**
Sobel Z 통계량		비표준화 회귀계수B(a)=.189 표준오차SE(a)=.022					
Z=-2.93		비표준화 회귀계수B(b)=-.178 표준오차SE(b)=.057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IV-5> 성취지향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표 IV-12>에 의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를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단계에서 성취지향 양육태도($\beta=.412$, $t=8.699$, $p<.001$)는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명력은 17%이며 회귀모형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75.674$, $p<.001$). 2단계에서 성취지향 양육태도($\beta=-.141$, $t=-2.741$, $p<.001$)는 외현적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2%이고, 회귀모형도 유의하게 나타났다($F=7.514$, $p<.001$). 3단계에서 성취지향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을 예측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성취지향 양육태도($\beta=-.070$, $t=-1.249$, $p<.001$)와 정서지능($\beta=-.173$, $t=-3.100$, $p<.001$)이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였고, 전체 설명력은 4.5%로 2단계의 2%보다 증가하였다. 또한 3단계에서 성취지향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을 독립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여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값($\beta=-.070$)이 2단계의 성취지향 양육태도가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값($\beta=-.141$)보다 줄어들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정서지능은 성취지향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서지능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Z=-2.93$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림 IV-6> 합리지향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

<표 IV-13>에 의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를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단계에서 합리지향 양육태도($\beta=.351$, $t=7.211$, $p<.001$)는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명력은 12.3%이며 회귀모형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51.997$, $p<.001$). 2단계에서 합리지향 양육태도($\beta=-.259$, $t=-5.150$, $p<.001$)는 외현적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6.7%이고, 회귀모형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26.521$, $p<.001$). 3단계에서 합리지향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을 예측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합리지향 양육태도($\beta=-.214$, $t=-4.018$, $p<.001$)와 정서지능($\beta=-.127$, $t=-2.377$, $p<.001$)이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고, 전체 설명력은 8.1%로 2단계의 6.7%보다 증가하였다. 또한 3단계에서 합리지향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을 독립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여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값($\beta=-.214$)이 2단계의 합리지향 양육태도가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값($\beta=-.259$)보다 줄어들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정서지능은 합리지향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서지능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Z=-2.25$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양육 태도일수록 자녀의 정서지능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외현적 공격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정서지능, 외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정서지능, 외현적 공격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각각의 변인 간에는 서로 유의미한 상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정서지능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하위변인인 애정지향, 자율지향, 성취지향, 합리지향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지능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애정을 바탕으로 한 관심과 수용의 태도, 자녀의 능력에 대한 격려와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일 때 정서지능이 향상됨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애정 및 성취차원과 정서지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오성심과 이종승, 1982)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 하위요인에서 합리지향, 자율지향, 성취지향, 애정지향 양육태도는 자녀의 외현적 공격성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을 바탕으로

로 한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태도이며 자녀에게 지나친 감독과 통제를 가하지 않고, 자녀의 능력에 대해 격려하고 존중하는 양육태도로 지각될수록 외현적 공격성은 낮아짐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친밀하고 합리적이며 허용적일수록(이영화, 김정연, 2012)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공격성은 낮아진다(정재영, 2013)의 연구결과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서지능과 외현적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정서적 지식의 활용을 제외한 정서의 인식과 표현, 정서에 의한 사고촉진, 정서의 반영적 조절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부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아동일수록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김미정, 2006). 긍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김숙형, 2004)의 연구결과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은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정서지능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하위변인인 애정지향, 자율지향, 합리지향, 성취지향 양육태도는 외현적공격성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자녀에 대한 관심과 수용의 태도, 자녀의 개성과 의견을 존중하는 양육태도를 보일 때, 정서지능은 높아지고 높아진 정서지능은 자녀의 외현적 공격성을 더욱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정서지능이 공격성을 낮추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소년의 정서지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과 또래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타인의 감정과 정서의 교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아버지 양육태도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며, 사춘기에 해당

하는 중학생들이 학교 내 외에서 외현적인 공격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행동의 예방 차원에서 학교나 사회가 바람직한 아버지 양육태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정서지능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2. 제언

이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남녀를 통합하여 살펴보았는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후속연구에서 이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외현적 공격성을 낮추는 변인으로 정서지능을 다루었는데 정서지능의 하위차원별 후속연구가 이루어져 정서지능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좀 더 깊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외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하위차원의 한 종류인 외현적 공격성을 다루었는데 공격성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좀 더 깊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 연구는 제주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추후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본 연구는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후속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보다 심층적인 조사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여섯째,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이므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참고할 경우 발달심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결과를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고미영 (1998).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6, 51-75
- 김기순 (2002). 아버지 양육행동 및 놀이성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 (2006).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 모형 탐색.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숙형 (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공격성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옥, 안성원(2013). 초등학생 고학년 남아의 자기통제력,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간 갈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김은희 (1997). 아버지 변인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선 (2002). 초등학교 아동의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일 (2004). 아버지의 권위인정과 지각된 양육태도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철희 (2014). 아버지의 공격성과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성자 (2015). 초등 고학년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경인교육대학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지 (2003). 가정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정도와 아동의 사회성 발달. 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경 (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문주 (2005).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태도 일치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지영 (2003). 부모의 양육행동 및 여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여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희동 (2008). Mayer와 Salovey의 정서지능이론을 활용한 아동 디자인 발상 교육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부자 (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지역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라리 (2013).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협회
- 안현지 (1999).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 지능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경수 (2011).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
- 오영미 (1997).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경미 (2002).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신 (2007).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관련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희 (2002).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연 (2011). 초등학생의 공격성과 사회적 선호도, 지각된 인기도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 이영자 (2009). 적극적인 부모역할 훈련(APT)프로그램과 부모의 양육태도.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화, 김경연(2012).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사회적 기술의 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지
- 이종승, 오성심(1982).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연구노트,11(1).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임희수 (2001).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 정복희 (2003). 중학생의 정서지능과 자기상(Self-Image)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 (2004). 원가족분화, 자아존중감과 부부 갈등대처방식에 따른 결혼안정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재영 (201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기개념과 또래지각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화 ,최명선(2005).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 상에 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3(1), 55-69
- 조주은 (2004).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하영 (2012). 아버지의 양육경험과 심리적 안녕감이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영문 (2010).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 영유아교육연구

- 친소형 (2009).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상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 (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미향 (2010). 청소년의 정서지능 및 가족기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진의 (2004). 아동의 공격성과 Winnicott의 대상관계이론에 관한 고찰. 학생 생활연구.
- 한영경 (2008).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영림 (2006).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26(1), 97-116.
- 홍정주 (1988). 아동의 감정이입과 공격성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선 (2007). 분노조절프로그램이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L. W. Hoffman,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Rousseau Sage Foundation
- Belsky, J. (1980). A family analysis of parental influence of infant Relationship: *Observational Studies in the Family Setting*. New York: Praeger.
- Berkowitz, L. (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Academic*
- Brame, B., Nagin, D. S., & Tremblay, R. E. (2001).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physical aggression from school entry to late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4), 503-512.
- Little, T. D., Brauner, J., Jones, S. M., Nock, M. K., & Hawley, P. H.(2003). Rethinking aggression: A typological examination of the functions of

- aggression. *Merrill-Palmer Quarterly*, 49(3),
- Mayer, J. D., & Salovey, P.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Parke, R. D. (1996). *Fatherhoo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hiteside-Mansell, L., Bradley, R.h., & McKelvey. L. (2008). Parenting and Preschool Child Development: Examination of Three Low-Income U.S. Cultural Group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8(1), 48-60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 Dodge, K. A., Coie, J. D., & Lynam, D. (200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youth. *In W. Damon & R. M. Lerner (Eds.),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An advanced course*.
- Karriker-Jaffe, K. J., Foshee, V. A., Ennett, S. T., & Suchindran, C. (2013). Associations of neighborhood and family factors with Dodge, K. A., Coie, J. D., & Lynam, D. (2008). Aggression and trajectories of physical and social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6), 861-877.

<Abstract>

The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 and external aggression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Kim, So Young

Major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Jung Wh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enting attitude, external aggress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perceived by junior high school students, an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father's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on external aggress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et up the following research problems.

Research questions 1.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emotional intelligence, and external aggression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Research Problem 2. Does emotional intelligence have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rearing attitude and external aggression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In order to solve this research problem, 372 students from two junior high schools in junior high school were interviewed from March 27, to April 3, 2017.

First, the 'parent - child rearing attitude perception test' scale (total 40 items, 5 point Likert) was used to measure father 's child 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Second, I used the test items of Lim Eun Hye (2002) (total 32 items, 3 points Likert) to measure emotional intelligence. Third, to measure extrinsic aggression, self - reported peer conflict scale (20 items, 3 - point Likert) of Marsee, Kimonis and Frick (2004)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procedures proposed by Baron and Kenny (1986), followed by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PECT for Windows 18.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attitude, emotional intelligence, and external aggressive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other words, father 's parenting attitud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emotional intelligence, and all four sub - factors of father' s parenting attitude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emotional intelligence. The correlation between father 's rearing attitude and external aggressio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mulet. Second, emotional intelligence showed partial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 's rearing attitude and external aggress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the emotional intelligence has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 's rearing attitude and external aggression perceived by junior high school students. This suggests the importa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by affecting the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the father 's parenting attitude and emotional intelligence showing the effect of lowering the external aggressiveness.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of father 's parenting attitude and emotional intelligence can be a factor that lowers the external aggressive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children, so it is used as the basis of education and counseling intervention for improvem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I expect to be.

<부록 >

설 문 지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 1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있으며, 중학교 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정서지능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본 질문지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연구 자료입니다. 평소에 아버지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각 물음에 대하여 한 문항이라도 빠트리면 열심히 답한 질문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빠짐없이 솔직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지의 내용은 학문적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될 것이며,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검사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학생의 평소 생각이나 느낌, 행동에 가까운 내용을 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질문지의 작성을 위해 할애해 주신 시간들은 본인의 연구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지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40분입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지도교수: 박정환

연구자: 김소영

e-mail: shuzou@naver.com

※연구결과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e-mail 또는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연구결과 전송과 해석이 가능합니다. (e-mail: _____ 연락처: _____)

본인은 위의 내용을 잘 이해하였으며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무기명 사인 ()

<부록 1> 아버지의 양육태도 설문지

※ 다음은 아버지가 평소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항을 읽고 아버지 실제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경우 지금 키워주시는 분을 아버지로 생각하거나 집안 어른 중에 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남자어른을 떠올리면서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번호	아버지와 나의 관계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와 다정하게 자주 이야기를 하신다.	⑤	④	③	②	①
2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물건까지도 전부 사다 주신다.	⑤	④	③	②	①
3	내 공부에 필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 주신다.	⑤	④	③	②	①
4	내 친구들이 집에 찾아오면 싫어하는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5	화가 나면 식구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⑤	④	③	②	①
6	"자기일은 자기가 처리해야한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다.	⑤	④	③	②	①
7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그것도 모르냐" 며 핀잔을 주신다.	⑤	④	③	②	①
8	아버지는 형제들을 야단치실 때 차별하는 일이 없다.	⑤	④	③	②	①
9	아버지는 내가 실수하여 일을 잘못했을 경우라도 꾸짖기 보다는 애썼다고 격려해주는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10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면 내게 맡겨주신다.	⑤	④	③	②	①
11	위인들의 훌륭한 업적이나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자주 들려주신다.	⑤	④	③	②	①
12	기분이 나쁠 때, 나의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는 때가 많다.	⑤	④	③	②	①
13	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거나 휴일에 가족 나들이 가기를 좋아하신다.	⑤	④	③	②	①
14	나의 말과 행동에 별로 간섭하지 않으시는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번호	아버지와 나의 관계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5	새로운 일에 대해서 나와 함께 얘기하거나 생각하기를 좋아하신다.	⑤	④	③	②	①
16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도 내가 끈질기게 조르면 귀찮아서 할 수 없이 허락해버리신다.	⑤	④	③	②	①
17	아버지는 내 말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⑤	④	③	②	①
18	내 의견은 묻지 않고, 나에게 관한 일을 마음대로 결정 하시는 경우가 많다.	⑤	④	③	②	①
19	하던 일을 끝까지 마쳐야 한다고 내게 자주 말씀하신다.	⑤	④	③	②	①
20	손님이 오셨을 때와 보통 때 나에게 대한 태도가 다를 때가 많다.	⑤	④	③	②	①
21	아버지는 나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알고 계신다.	⑤	④	③	②	①
22	나의 일은 나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겨주시는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23	모든 일에 열심히 하라고 자주 말씀하신다.	⑤	④	③	②	①
24	기분 좋을 때는 잘해주다가도, 기분이 나쁘면 뚜렷한 이유 없이 야단치곤 하신다.	⑤	④	③	②	①
25	내가 질문을 하면 아버지는 아시는 데까지는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애쓰신다.	⑤	④	③	②	①
26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할 때가 많다.	⑤	④	③	②	①
27	내가 어떤 새로운 호기심이 생겨 그 일에 열중해 있으면 엉뚱한 짓을 한다고 나무랄 때가 많다.	⑤	④	③	②	①
28	내게 벌을 줄 때 대개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나.	⑤	④	③	②	①
29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관심을 갖고 들어 주신다.	⑤	④	③	②	①
30	우리 집에서는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미리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④	③	②	①
31	새로운 일이나 여행은 위험하다고 못하게 하신다.	⑤	④	③	②	①

번호	아버지와 나의 관계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2	비록 청소년의 말이라도 이치에 맞는 말은 존중해 주시는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33	내가 무엇을 해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우선 화부터 내는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34	아버지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거의 허락해주시는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35	내가 여러 가지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하신다.	⑤	④	③	②	①
36	잘못을 하게 된 원인이나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가지고 꾸중할 때가 많다.	⑤	④	③	②	①
37	아버지는 나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	⑤	④	③	②	①
38	아버지는 공부나 집안일을 돕는 것 등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맡기신다.	⑤	④	③	②	①
39	나의 능력이나 힘에 좀 벅찬 일이라도 나에게 해보라고 권장하시는 경우가 많다.	⑤	④	③	②	①
40	아버지는 가끔 정당하지 못한 명령을 무조건 그대로 따르라고 하시는 일이 많다.	⑤	④	③	②	①

< 수고하셨습니다. 뒷장에 다음 설문지가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록 2> 외현적 공격성 설문지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실제로 나의 행동을 잘 설명하는 숫자(0~3)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1	게임이나 경쟁에서 이기려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	①	①	②	③
2	놀림당하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무언가를 부술 것이다.	①	①	②	③
3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싸움을 건다.	①	①	②	③
4	누군가 나를 다치게 하면, 결국 싸움으로 번진다.	①	①	②	③
5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위협한다.	①	①	②	③
6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때, 내 자신이 강하고 대단한 것처럼 느껴진다.	①	①	②	③
7	누군가 나를 위협하면, 결국 싸움으로 번진다.	①	①	②	③
8	누군가에게 화나면 그 사람을 다치게 한다.	①	①	②	③
9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협한다.	①	①	②	③
10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을 다치게 한다.	①	①	②	③
11	나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고의적으로 못되게 군다.	①	①	②	③
12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치게 할지 신중하게 계획한다.	①	①	②	③
13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에게 물건을 던진다.	①	①	②	③
14	누군가 얼마 전에 나에게 한 일 때문에 그 사람을 다치게 한다.	①	①	②	③
15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재미있다.	①	①	②	③
16	내가 말다툼이나 몸싸움을 했을 때, 보통은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다.	①	①	②	③
17	나보다 작은 애들을 해코지 하는 것이 재미있다.	①	①	②	③
18	나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사람도 위협한다.	①	①	②	③
19	화가 나면,누군가를 해코지할 것이다.	①	①	②	③
20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소한 무시에도 싸움을 하게 된다.	①	①	②	③

<부록 3> 정서지능 설문지

※ 다음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감정들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들을 자세히 읽 보시고, 평소의 자신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다음 문항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어느 한 문장에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그렇지 않다	가끔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내 기분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2	나는 슬플 때의 느낌과 부끄러울 때의 느낌이 다르다.			
3	나는 얼굴 표정만 보고도,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다.			
4	나는 목소리나 말투만 들어도,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알 수 있다.			
5	나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길에서 만나면, 달려가서 반갑게 인사한다.			
6	나는 친구가 놀리면, 기분 나쁘니 놀리지 말라고 말한다.			
7	나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잘 안다.			
8	나는 친구가 진심으로 고맙다고 하는지, 아닌지 잘 안다.			
9	나는 숙제를 하다가 친구가 부르면, 숙제를 덮어두고 친구를 따라 나간다.			
10	학원에 가야 하는데,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만화를 한다. 이럴 때 나는 만화가 끝나면 학원에 간다.			
11	나는 몸이 약한 친구를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고 걱정이 된다.			
12	텔레비전에서 주인공에게 슬픈 일이 생기면 나도 슬프고 눈물이 난다.			
13	나는 평소에 기분을 좋게 갖으려고 애쓰는 편이다.			
14	나는 내 기분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15	나는 어떤 일이 잘 안될 때, 칭찬받았던 일을 생각하며 다시 해본다.			
16	나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 즐겁게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			
17	나는 친구를 좋아하는 감정과 미워하는 감정이 한꺼번에 생기기도 한다.			

번호	문항	그렇지 않다	가끔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18	나는 화가 나는 감정이 계속되면 분해진다.			
19	나는 친구들 앞에서 실수하면, 실수한 것이 화가 나기도 하지만 친구들에게는 창피하다.			
20	나는 못하는 친구와 한 조가 되면 싫지만, 그 친구를 생각하여 같이 활동한다.			
21	나는 친구와 싸웠을 때,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22	나는 엄마를 도와 설거지하는 일이 힘들지만, 끝내고 나면 마음이 뿌듯하다.			
23	나는 게임에서 저도 받아들이고 이긴 편을 축하해준다.			
24	나는 친구가 나의 나쁜 점을 얘기해주면, 그 친구가 입고 화가 난다.			
25	나는 시험을 망쳐서 속상할 때,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먹고 오늘 시험은 빨리 잊는다.			
26	나는 기분이 나쁘더라도 친구가 말을 걸어오면 웃으며 들어줄 수 있다.			
27	나는 화가 나면, 왜 화가 나는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본다.			
28	나는 친구가 미워지면,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29	나는 선생님의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30	나는 친구가 슬퍼 보이면, 기분을 좋게 해 주려고 노력한다.			
31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영영 울고 있는 친구가 있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울지 말라고 한다.	친구의 어깨를 토닥 거린다.
32	영희는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 심하게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 타고 있다. 이럴 때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화가 난다.	걱정이 된다.	무서워진다.

< 뒷장에 마지막 설문이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다음은 여러분의 아버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은 후 각 란에 내용을 기재해 주시거나, 해당되는 곳에 답하거나 V 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학생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2. 학생은 몇 학년입니까?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 학생의 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제주시 동지역 ② 제주시 읍면지역
③ 서귀포시 동지역 ④ 서귀포시 읍면지역

4. 학생의 가족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 ① 핵가족 ② 대가족 ③ 기타 _____

5. 학생의 아버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세)

6. 학생의 아버지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② 대학 졸업 ③ 대학원 졸업 이상

7. 학생의 아버지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업 ② 어업 ③ 생산직 ④ 서비스직 ⑤ 사무직 ⑥ 판매직
⑦ 행정, 관리직 ⑧ 전문, 기술직 ⑨ 기타 _____

※기타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학생은 하루 평균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대화, 놀이 등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은 어떻게 됩니까?

- ① 30분미만 ② 30분~1시간미만 ③ 1시간이상~2시간미만
④ 2시간이상~3시간미만 ⑤ 3시간 이상

♣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십시오.